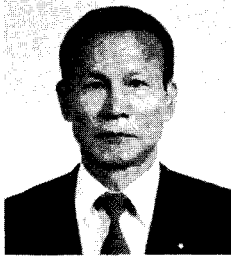


비육우 유통의 문제점과 대책



북일농장 대표 **진 교 복**

우리나라의 비육우축산은 그경영상의 어려움이 장기간 계속되어 기진맥진한 상황이다. 그원인을 살펴볼때 첫째는 쇠고기나 송아지의 무계획적인 수입이 물량적으로 포화상태가 되어 수급의 균형을 상실했고 둘째로는 소의유통상에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고 또한 유통상에 부정과 부조리가 계속되고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현실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소의 유통을 대별하면 생소의 유통과 도축우의 유통으로 구분할수 있다. 첫째 생소 유통과정에서는 송아지의 유통과 비육소의 유통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송아지의 유통상태는 상인이 생산지에서 구입하여 자동차에 싣고 지방시장으로 다니면서 판매를하는 즉 그기간 사양관리가 소홀하여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나 사양관리의 결함이 그 송아지가 일생을 자라는 동안 커다란 지장을 받는다. 가장 소중한 가장 세밀하게 다루어야할 중요한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물건취급을 받아 소홀히 다루워지고 있다.

다음 도축우의 유통이다. 비육소는 생산자가 바로 도축장으로 출하하여 처리되는 것이 정상

코-스이나 우리나라 소의 생산자 경영단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도살장에 출하하지 못하고 중간상인에게 매도되고 또 그중간상인이 시장에서 쇠고기 소매업을 하는 상인에게 판매하여 도살장에서 처리되어 자기상점에서 소매되는 경우와 또다른 상인에 의하여 도살장에서 처리되어 위탁경매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유통과 도살처리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부정과 부조리는 일반상식으로는 짐작도 못할상황이 비일비재 하다. 우선 비육소가



매매되는 유통과정에서보면 강제로 물을 먹여 중량을 최대한으로 붙여서 거래되는 것을 볼수있다. 이것을 산 상인은 또다시 재차 강제급수를 하여 도살 처리하여 판매되고 있다. 이때 비육소 두당 지육이 40kg 증가한다고 한다. 육질은 떨어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악질 상행위가 전국에서 백주에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부정 도살을 할수있는 연고지를 경상남도에도 가지고있는 상인이 강원도에서 비육우를 사가지고 많은 연료를 소비하면서 자기 연고지로 부정도살을 하러 가는것이다. 이러한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인지 정해진 법근거에 의해서인지 대도시 도축장에서는 일정시간을 계류했다가 도살 처리하고 있으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계류제도가 철저히 못한것으로 안다. 그래서 지방육 대도시반입이 성행되고 있다. 또당국에서는 지방육 반입을 허가하는 시기가 있는가하면 반대로 지방육 반입을 막는 때가 있는데이것역시 어느쪽이 불법인지를 알수가 없다. 또한 도살전에 일정시간을 계류하는 것이 제도상이나 법률상으로 적법하다면 지역차 없이 공평하게 취급되어야 하겠는데 그렇지못하니 이해할수가 없다. 또한 대도시의 계류제도가 부정상인을 기준으로해서 제도화 했다면 선량한 양축가의 피해는 부정상인 때문에 언제까지 당해야 할지 한심스럽다. 각 도축장에는 관에서 감독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육우의 도축과정에서 각종 부정과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으니 한심스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다음은 도매시장에서 지육과 부산물이 도매되는 과정이다. 상인일색으로 경쟁입찰 형식에 의해서 지육이 판매되고 부산물은 어느 기준의 정가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으며 거기서 각종 수수료와 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출하주가 수령한다. 이 경우 생산자의 생산원가나 기타 여

건은 전혀 무시당하고 단지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판매된 댓가만을 수령하는 생산자는 비육우를 수백두 혹은 수십두 수천두를 생산하는 생산자라도 두당 수십만원의 적자운영을 감당하기란 실로 어렵기만하다. 이에 비해 상인들은 두당 수십만원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 생산자는 비육소 1두를 생산하는데 100만원 이상의 금전과 최소한 15~18개월의 시간을 투자하여 수십만원의 적자를 보고 반면 상인들은 하루나 이틀 또는 몇시간동안에 1두를 판매하여 수십만원의 이익을 보고있다. 도매시장에서 볼수있는 광경이다. 상인들은 너나없이 전부 승용차를 타고 있다. 사업규모가 크고 작고 간에 100%다. 반면 생산자는 수십, 수백두의 규모라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 100%차를 가질수 없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생산자와 상인을 구별하기가 쉽다. 차를 탔느냐 타지않았느냐의 차이에서 쉽게 구별이 되고 의복이 좋은 의복이나 여부에서 쉽게 알수 있고 또 피부색에서도 쉽게 구별할수 있다. 이것은 어디엔가 유통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 아닌가 본다. 특히 비육우의 생산과 소비를 조정하는 정치적 차원에서 생각해볼수 있다. 적어도 정부차원에서는 생산과 소비의 통계를 기준으로해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1980년대로 들어서면서 수입쇠고기가 무진장 들어오기 시작했고 송아지 역시 무진장 들어왔다. 그러다가 85년에는 우리나라 소가 300만두를 넘어서 포화상태가 되었다하여 소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85년말부터 중암소(성빈우)를 수매, 도살하고 있고 10만두 계획을 금년 6월말까지로 계획했는데 다시 연장집행한다고 한다. 이 수매육도 현재 시중

판매되고 있어 최고기장사는 일반식육점과 수매육판매점과 이원화되어 있다. 정책적으로 수매하여 시판되는 고기(포장육)를 시중판매할때 가격을 의식해서 시판량을 조절하는 차원높은 판매방식이 바람직하지만 별로 일반 식육판매 방식과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 85년도 5월에 정부가 발표한 전국에 소의 수는 300만두를 초과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수급에 알맞는 적정두수는 얼마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확실히는 알 수 없으나 약 200만두 내외면 적정두수가 되지 않겠는가 본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소가 80년도 초에 적정두수에 미달되어 자급도가 60% 이내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렇던 소가 85년도 초에 300만두를 돌파하였다 한다.

여기서 번식추세를 역산해서 생각할 때 적어도 2~3년전에 적정두수가 확보되었다고 수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쇠고기 도입송아지는 한도없고 끝도없이 들어와 쌓였던 것이다. 이때가 이미 우리나라 소가 적정두수를 넘어서도 한참 넘어섰던 때였다. 이때 판매된 수입쇠고기 가격도 수입가격과는 상당한 차이의 고가로 판매되었고 도입송아지 역시 원산지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의 고가로 공급되었다. 아마도 이때의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의 통계는 전혀 무시했었는지 아니면 수입하기 위한 통계수치로 조작이 되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해할 수가 없다. 또 그 당시 시행착오를 했다하여 책임을 진사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런것들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지않고 있는듯하다. 다만 많은 예산을 세워 매일같이 성빈우를 수매 도살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비육소 유통은 정상유통이 안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유통구조하에 우리 생산자는 생산원가는 커녕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여 도산지경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비육소 유통과정에서 불법으로 부조리가 감행되는 강제급수·도살행위는 쇠고기의 질을 망치고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쇠고기의 선호도는 근래 형편없이 떨어지고 소비가 줄고 있다.

우리나라 비육소의 유통과정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종합적인 원인은 비육소에 대한 일관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당국의 축산정책과 비육소의 유통상인들의 비양심적인 행위, 도축과정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다. 이런 원인이 유통질서를 파괴하고 쇠고기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생산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가 되어 적자운영 내지는 도산 상태로 몰고가고 있다.

수입쇠고기가 들어와서 시판될 때에는 한우 쇠고기로 둔갑하여 소비자가 많은 피해를 입었고 상인들은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입송아지 역시 현지가격을 무시하고 당시 국내가격에 기준하여 약 90%선 가격으로 농가에 공급했었다. 이때 가격은 국내가격의 90%선 이하고는해도 입식농가가 선택해서 살 수는 없고 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하자가 있었고 병든 소가 많아서 결과적으로는 국내 가격보다 훨씬 비싼가격으로 입식한 결과가 되었었다. 이러했던 여러가지 사실이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야기시켰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힌 결과가 되었다. 쇠고기를 판매하는 유통과정에서는 수입쇠고기를 한우쇠고기로 둔갑해서 판매했던, 그리고 부당이득을 취했던 것들이 습관화되어 지금 이루어지는 각종 부조리가 성행되고 있는 원인이 된듯하다. 하여

간 이같이 유통상에서 이루어지는 부정과 부조리의 요인은 이상태로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의 대책으로 첫째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재고물량과 소비방안을 생산자나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공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가 86년초까지 상당량의 외국쇠고기가 수입되어 창고에 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그 물량이 과연 얼마나 쌓여 있는지 또 언제까지 어떻게 전량이 소비가 된 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쇠고기만 유통될지를 명확히 알아야 생산자나 소비자가 안정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자는 소비추세나 통계숫자를 감안하여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는 앞으로의 외국쇠고기나 기타 부산물 등의 수입정책을 솔직·정확하게 발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는 쇠고기만 몇천톤 몇만톤 들어왔다고 알고 있었는데 쇠꼬리와 쇠뼈가 상당량 들어왔고 같은 품목이 호텔용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세계은행총회 명목으로도 상당량이 들어왔는데 시차가 생겼다는 말도 들었다. 이와같은 쇠고기나 기타 부산물의 무분별한 정책이 계속된다면 생산자는 어떻게 생산을 하겠으며 소비자는 어느 쇠고기를 먹을 것인가! 이 정책을 국민앞에 정확하고 확고한 책임있는 발표를 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아울러 과거의 축산물 수입정책이 국가차원에서 볼때 잘됐다고 평가된다면 이 정책 수행자를 포상할것이며 잘못됐다고 평가된다면 단 한사람이라도 문책을 해서 신상필벌의 질서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소값을 부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정

부가 구매하는 한우 암소의 포장육 판매사업, 이 사업은 유통체계상의 다소 문제점이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식기반을 말살하는 것이다. 기어이 암소만을 구매해야 한다면 늙은 암소를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암소 중에서도 능력좋은 성빈우는 계속 송아지를 번식하여 이를 비육해서 고기를 생산하는 기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구매하고 있는 암소기준을 초과하는 늙은 암소는 가격이 반사적으로 하락되어 있다. 농가에서 농경과 번식을 목적으로 200만원 내외에서 구입한 것이 지금 시장시세로 40~50만원 선이다. 구매를 늙은 암소도 포함한다면 다소의 구제가 될것이나 소값을 부양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육시장에서 지육을 구매하는 것이 소의 유통에 전반적으로 영향이 고루 파급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소축산의 백년대계를 깊이 인식하고 적정두수의 번식기반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구매포장육의 유통은 그 유통물량을 일반육의 가격동향에 따라서 조절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만일 일반육 가격이 떨어지면 구매포장육의 재고적체를 감수하고라도 구매물량은 변동없이 구매를 계속하되 포장육 시판물량은 기술적으로 조절해서 소의 가격부양에 기여해 주었으면 한다.

세째 소의 유통과정이나 도축과정에서의 강제급수의 악질적 폐습은 근본적으로 뿌리 뽑는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이러한 악습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하겠다. 또 육류식품에 조리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불고기가 고기반 물반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원인으로 쇠고기맛을 잃고 소비자들은 쇠고기의 선

호도가 많이 저하되고 있다. 이러한 부조리와 부정이 사라져야만 본연의 한우 쇠고기맛을 찾을 것이고 맛을 찾아야 소비가 촉진될 것이다.

넷째 쇠고기의 육질을 높여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급제가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겠다. 육질을 따지지 않고 물량 기준으로 하는 유통방법이 지속되는한 육질의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육질좋은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거세해 가지고 일정기간에 일정규격이 되도록 비육해서 우수한 육질을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꿈도 못꾸고 있다. 이것은 하루속히 쇠고기의 등급별 가격제도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리라고 본다. 앞으로 대대적인 국제행사를 의식할 때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유통체계가 빨리 정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섯째 지육도매가격이 합리화되어야 하겠다. 쇠고기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생산자는 적자생산을 면치 못하는 도매가격을 받는 반면에 상인들은 과도한 마진을 취하는 불합리한 유통이 현실이다. 도매시장 관계자나 모든 유통과정관계자는 합리적인 상도의를 불러일으켜 생산자나 상인 소비자를 다 같이 의식하는 합리적 유통체계가 되어지도록 촉구해 마지않는다. 특히 소의 부산물등의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가격 격차는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소 부산물(특히 내장)은 어느 육류에 못지않게 좋은 식품이며 선대로부터 잘 요리돼서 이용하여오던 것이었으나 지금주부(신여성)들이 소내장을 처리해서 좋은 요리를

해먹는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일부음식점에서만 요리를 만들어 팔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과같이 소비가 활발하지 못하다. 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각 유통관련기관에서 소비를 유도하는 캠페인, 선전공세 등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심한 가격격차는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의 유통체계가 정상화되고 가격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재 쌓아놓고 있는 수입쇠고기를 완전히 소비하고 소와 쇠고기 기타 부속품의 수입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좌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소축산정책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하고 생소나 쇠고기 유통과정에서의 악덕부조리는 최근에는 다소 취체가 엄중하다하여 고개를 숙인듯하나 이것 역시 지속적으로 비리가 사라지도록 밀고 나가야 할 것이며 겹해서 지방육의 대도시 반입은 이를 터났다 막았다 할것이 아니라 적법성 여부를 규명하여 일관성있는 처리가 되어줌으로서 각종 오해나 억측이 해소됨과 동시에 유통의 정도(正道)가 명시되어질 것이다. 수매암소의 포장육은 한마디로 피골이 상접한 쇠고기이기 때문에 쇠고기의 소비자 기호를 떨어뜨리고 있다. 가능하면 각 도매시장에서 지육을 수매하여 정부가 예산책정한 액면을 보상하고 싸값으로 공급함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방침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는 정책이 확고하게 수립되고 생산자 상인 모두가 분에 맞는 나름대로의 도의와 양심이 제자리를 잡을 때 생산, 판매, 소비의 체계가 정상상을 찾을 것이다.